

China Mobile/Vodafone/Softbank의 조인트벤처 설립의 내용과 시장 Impact

- 세계 1, 2위 이동전화사업자인 China Mobile, Vodafone과 일본의 Softbank가 차세대 무선 인터넷 플랫폼 개발을 위한 조인트 벤처 'JIL (Joint Innovation Lab)'을 지난 4월 24일 설립.
 - ❖ 2008년 현재 China Mobile 3억 9,200만명, Vodafone 2억 5,200만명, Softbank 1,800만 명 등 총 6억 6,200만명에 이르는 막대한 가입자 기반을 배경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유통 플랫폼 장악을 위한 '사실상의 표준' 구현이 목적
- 오는 2008년 여름, 네델란드에 본사를 두고 론칭할 예정에 있으며, 개발 플랫폼의 출시 시기는 2009년 하반기로 계획
 - ❖ 향후 단말 벤더의 참여를 통한 파트너쉽 확대도 고려 중

<p>개발 플랫폼 내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.6억명에 달하는 참여 이동 3사의 가입자 단말에 JIL에서 개발/규정한 기술 표준에 따른 콘텐츠와 서비스를 탑재해 나갈 계획 • 이를 위해 음악/만화/영화 및 각종 애플리케이션등의 전달에 필요한 파일포맷이나 프로토콜을 책정해 나갈 예정 • 시큐리티/통신 제어/과금 등에 대한 표준안 개발도 포함. • 어떤 OS나 미들웨어등의 플랫폼위에서도 작동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 • 3사가 공동으로 개발/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소액 과금에 의한 콘텐츠/서비스 판매를 실시할 계획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i-mode의 글로벌 확장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독자 표준으로 글로벌 진출에 실패한 i-mode의 전략과 다르게 출발부터 글로벌 협력체제에 기반 ▪ au의 「KCP+」나 소프트뱅크 모바일의 「POP-i」(Portable Open Platform Initiative)과 같은 단말 기능을 정의한 플랫폼 수준을 넘어 과금, 콘텐츠 전달, 보안, 위치 정보의 제공 등 이동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폭넓은 수준
<p>조인트벤처 설립 배경 및 목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차세대 이동통신시장에서 콘텐츠/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유통 플랫폼을 장악 • 막대한 가입자 기반을 활용, 모바일 플랫폼 시장내에서 '사실상의 표준'을 장악 • Android, iPhone 등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며 콘텐츠/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진영과의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는 단말 진영의 공세를 차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차세대 이동통신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단말 진영과의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 ▪ 서비스 대상을 특정 국가, 특정 권역을 넘어 전세계로 확장 ▪ Softbank의 참여는 Yahoo!의 콘텐츠 파워 및 중국 Aribaba의 'Airpay'결제 시스템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파악
<p>시장에 미치는 Impact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참여 3사간 공동의 표준 과금체계가 구축되면, 7억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개발이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이 예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규모의 경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자 진영의 참여 인센티브가 크게 높아짐 • 강자 연합에 의한 '사실상의 표준'이 구현되면 참여 3사의 시장 지배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애플리케이션 개발시, 7억 가입자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가 예상됨에 따라 개발 진영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존재 ▪ '사실상의 표준' 구현이 성공할 시, 참여 3사의 시장 지배력 확대 예상